

축산업계

소식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은 제외

정부는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과 선도농어민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회의에서 국내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축사의 건축절차를 간소화 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고에 의한 축사 건축면적을 현행 60평에서 1백20평으로 확대하고, 값싼 자재로 건축이 가능한 표준설계도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약3백억원 정도의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이번 농어촌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사료원료 수입할당관세율을 1%로 인하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사료업체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 한편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에 최대한 지원, 축산농가의 추가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위생연구소

김상희 전계역과장 정년퇴임



그간 농촌진흥사업을 위해 30여년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양계질병을 퇴치하여 양계산업 안정화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가축위생연구소 김상희 전 계역과장의 정년퇴임식이 지난 24일 가축위생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김상희 전과장은 특히 '88년부터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위원으로 활약하여 우량 종계를 보급하는데도 공헌한 바가 커 본회에서는 그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감사패를 기념식장에서 최준구회장이 전달하였다.

'94년도 축산분야종합학술대회 개최

한국축산학회협의회(회장 강희신)는 지난 24일~25일 양일간에 걸쳐 경남 진주소재 경상대학교에서 '94년도 축산분야종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가금학회, 한국영양사료학회, 한국축산학회, 한국낙농학회 등 각 학회별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한국사료협회가 후원한 한국가금학회 '94년도 하계 특별심포지움도 겸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한국가금학회 심포지움에서 축산시험장 이상진 연구관이 “음수와 닭의 생산성”, 충남대학교 이봉덕 교수가 “고온 스트레스와 수분 섭취”, 강원대학교 이규호 교수가 “난용계의 선택 채식과 영양소 공급체계”, 대구대학교 남기홍 교수가 “Mycotoxin과 가금의 영양”, 건국대 고태송 교수가 “가금사료에서 단백질과 에너지 이용율의 동시 측정”, 고려대학교 지규만 교수가 “계란의 cholesterol의 문제점과 대책”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25일 축산분야종합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고유 동물자원”이란 주제로 특별 심포지움에 이어 관광하는 순으로 '94년도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를 마쳤다.

축산단지 총27개소 최종 확정

농림수산부가 UR대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 축산단지 조성사업 선정대상지가 지난 1차분으로 한우2, 양돈4, 양계3개소 등 9개소가 선정된데 이어 2차분 대상지 양돈11, 양계1, 젖소2, 한우2개소 등 모두 27개소가 최종 확정 되었는데 축산단지 선정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축산단지 선정대상지

구분	지역	단지명
1차분	충북	• 중원양성양계단지 • 중원산척양계단지 • 중원신니한우단지
	충남	• 당진고대양돈단지
	경북	• 영풍세원양돈단지 • 성주용신양돈단지 • 영천양돈단지 • 의성가은양계단지 • 경주아화한우단지
2차분	경기	• 양주농본양돈단지 • 여주오성양돈단지 • 포천창수양돈단지 • 양주회천양돈단지 • 파주교하양계단지 • 안성서운낙농단지 • 파주파평낙농단지
	전북	• 진안텃골양돈단지 • 고창심원양돈단지 • 김제전라양돈단지 • 김제금구한우단지
	경남	• 함안돈우회양돈단지 • 창녕대송양돈단지 • 김해상동양돈단지 • 합천옥산한우단지 • 남해오성한우단지 • 하동북천한우단지
	제주	• 남제주대정양돈단지

농림수산부는 1차분에 선정된 축산단지 9개소에 66억원을, 2차 선정대상지에는 1백31억3천7백만원을 축발기금에서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3~5%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기계 반값공급 추가 1천억원 지원키로

농림수산부는 농촌일손이 부족하여 영농기계화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금을 덜어주고, 농기계 반값공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 하반기중 농협자금 1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농기계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저리 융자키로 했다.

가축배설물 처리이용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

국립축육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협이 후원한 “가축배설물 처리 이용에 관한 국제 세미나”가 지난 9일 축협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제 세미나에서 일본 농림수산성 초지시험장 연구기술정보관인 古川良平이 “일본축산의 큰 과제(일본 국토의 환경오염, 환경유지를 위한 법규제, 가축분뇨 처리의 현주소, 일본의 가축분뇨 처리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홍림 교수가 축사의 상상부 환경개선과 한국형 가축분뇨처리시설 고찰을 주제로한 “축사 환경개선의 실례”, 네덜란드 양돈연구소 Jan A.M. Voermans 부소장이 “양돈산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95년도 축산예산 증액 요청

농림수산부는 '95년도 축산사업분야에 지원될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1천6백36억원에 비해 58%(9백51억원)가 증액된 2천6백87억원을 요청했다.

또 '95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2조5천5백34억원 보다 51.4% 증액된 3조8천6백67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신청하면서 축산사업부분의 경우 이같이 요청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축산사업을 생산 및 유통 개선 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이부분예산 9천2백95억원중 28.9%인 2천6백87억원을 축산 부문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키로

농림수산부는 전근대적이고, 비위생적으로 도축되고 있고, 부위별 처리도 안돼 부분육, 브랜드육을 찾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도축·가공시설, 진공포장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최신시설을 갖춰 소 2만~4만5천두, 돼지 30~60만두 정도를 연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오는 200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일반유통회사와 식품회사도 참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중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부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양축농가, 축산협업체와 계약사육, 계열 농가에게 사양기술을 지도 하는 등 계열화 유통체계를 확립키로 하는 한편 자기상표를 붙여 직영점 등 자체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사료곡물생산량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최근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료곡물생산량은 8억4천5백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억8천5백40만톤에 비해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생산량을 보면 미국 2억4천9백10만톤, 유럽연합 8천2백90만톤으로 작년동기 대비 33%, 0.2%가 각각 증가했다.

축협 “한우리정보” 개발로 다양한 서비스제공

축협은 양축농민들의 고급정보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축협 한우리정보」라는 전산망을 개발하여 양축가 누구나 축산 및 축협관련정보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요서비스 내용을 보면, △가축개량 △축사표준 설계 △축산환경 △사료 △기술정보 △고급육 생산 △인공수정 △종돈분양 △정책자금안내 △유통 △축산관련 기초상식 등인데 한우리정보 전산망의 완전히 개통되는 7월9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농협

「하나로 거듭나기 운동」 발대식 가져

농협은 지난 13일 농협대강당에서 농민이 신뢰하고, 고객이 만족하며, 직원들이 평생직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로 거듭나기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하나로 거듭나기 운동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민과 하나되기 △고객과 하나되기 △계통사무소간 하나되기 △직원간 하나되기로 구분하여 추진키로 했으며, 이 운동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본사내에 「농협개혁추진위원회」와 「운동추진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94년도 춘계학술 심포지움 개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보다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 “안전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 적용”을 주제로한 '94년도 춘계학술 심포지움

을 지난 17일 서초구 양재동 소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홍종해 교수가 “축산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HACCP 개념을 적용”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한국식품연구소 천석조 박사가 “식품가공장에서 HACCP 적용”, 일본 Iwate대학교 수의학과 Kunihiro Shinagawa 교수가 “식육처리장(도축장)에서 HACCP를 기본으로 활용하는 위생관리”, 가축위생연구소 박종명 과장이 “HACCP를 이용한 축산식품의 유해잔류물질방지”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문한 교수, 국립동물검역소 김옥경 소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이규학 부장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 '94년도 단합전진대회 개최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회장 양창욱)는 지난 6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수안

보 온천 파크호텔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란 구호아래 '94년도 전진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창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UR, GR 등 생소한 국제적 압력들이 국내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기자재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건국대 오인환 교수는 축산기자재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학연구회와 분과위원회의 발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건국대 김정주 교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A/S가 절대적인데 수입기자재에 비해 국내기자재의 강점이 A/S를 보장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걀하나 건강하나
동그랗게 웃는 하루

노 계 유 통 전 문



노계유통에 일익을 담당할
대림유통이 탄생했습니다.
양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대 립 유통

대 표 변 광 일

충남 천안시 다가동 373-3 (삼화B/D 302호)

전 화 : (0417) 554-4604~5